

재미 한인들의 초기 이민 경험과 질병관리에 관한 고찰

미국 UCSF 박사과정 임 은옥

간호학은 이제까지의 서구 문화 중심적인 경향에서 세계화의 방향으로 전환을 겪고 있다.

간호학의 이러한 경향은 재미 한인들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미국 간호학의 한인들에 대한 문화적 지식의 유입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더구나 기존 연구들은 한인들이 질병을 비효율적이며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초기 이민 경험은 이민자들의 건강과 질병 관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비평적 문헌 고찰을 통하여 초기 이민 경험이 재미 한인들의 질병 관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살펴 보고 이에 근거하여 재미 한인들을 위한 적절한 간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의학 도서 목록 전산망과 기타 문헌 자료를 이용하여 1966년부터 1995년까지의 의학, 보건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위하여 4개의 세부적인 주제 아래 문헌들을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일반적인 이민자들의 초기 이민 경험, 건강, 질병 관리가 고찰되었고, 둘째로 재미 한인들의 초기 이민 경험이 고찰되었으며 셋째로 재미 한인들의 건강, 질병 관리가 고찰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이들을 위한 간호의 방향을 제시해 줄 기존의 간호 모델들이 고찰되었다.

문헌 고찰 결과, 재미 한인들의 부적절한 질병 관리는 그들의 초기 이민 경험들과 관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문화적으로 결정되어진 신념이나 태도들이 재미 한인들의 적절한 질병 관리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미 한인들도 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질병 관리를 위해 현대 의학, 한방, 무속, 민간 요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방의 사용이나 이러한 치료법들의 혼용은 한인들의 적절한 질병 관리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 소통의 차이점에서 오는 오해들이 재미 한인들의 질병 관리를 부적절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민생활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들 또한 재미 한인들의 질병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섯째, 사회적 지지의 부족 역시 재미 한인들의 적절한 질병 관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간호 모델의 부재가 이들을 위한 적절한 간호의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를 두고 초기 이민 적응기에 있는 재미 한인들에게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몇가지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문화적으로 적절한 간호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문화적으로 적절한 간호를 위해서 간호 제공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다른 간호 대상자의 문화도 존중해 주어야 하며, 문화적으로 결정되어진 건강 신념들과 질병 관리 행태도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한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제공자들은 자문화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간호 대상자들의 상황을 총괄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이민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가지고 간호를 제공하여야 하겠다. 둘째, 간호 제공자들은 한방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한 의학 혼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간호 대상자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적 차이나 자민족 중심적 사고 방식으로 인한 오해를 막기 위하여 간호 제공자들은 간호 대상자와 자주 상호 교류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막아야 할 것이다. 상호 의사 소통 시에 간호 제공자들은 진지한 태도로써 배우는 자세로 간호 대상자를 대하여야 할 것이며 자신의 자민족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인지하고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 소통의 문화 집단별 차이를 앞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적절한 간호의 제공을 위하여 말만을 직접 번역해주는 통역자와는 달리 문화적 배경까지도 이해하고 해석해 주는 문화적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 문화는 가족 중심적 문화이므로 간호 대상자의 혈연 관계를 이해하고 그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가족원을 간호 중재에 참여시킴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간호를 위하여 재미 한인들을 위한 적절한 간호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체계적인 간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